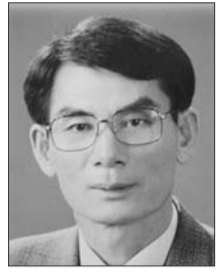


호매칼럼

반객위주(反客爲主)

- 주객을 전도시킨다 -



이정랑 /중국고전평론가

빈틈이 있으면 발을 들여놓고, 손서에 따라 차근차근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수뇌부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잡는다. 이것이 반객위주의 책략이다.

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자는 객(客)인데, 아주 오래 머물러도 객에 불과할 뿐 주인의 집안일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천객(賤客)이라고 한다. 그리고 주인의 집안일에도 참여할 수 있고, 점차 집안일을 해결하는 권한까지 장악하는 자는 바로 주인이 된다.

(鴻門宴)에서도 겨우 도망을 쳤다. 그러나 후에 세력이 커지고 충분히 활약할 만큼의 실력이 생기자, 해하(核下)에서 전투를 치러 항우를 오강(烏江)에서 죽게 만들었다.

특별한 적이 있었다. 후에 원소는 세력이 점차 강해졌고, 끝없이 세력을 확장할 생각으로 병사들을 하내(河內)에 주둔시켰으나, 병사 수에 비해 군량미가 턱없이 모자랐다.

그는 수하에 있는 책사 봉기(逢紀)의 설득으로 한복이 식량을 쌓아 놓은 기주 지방을 빼앗기로 결정했다. 그는 우선 공손찬에게 편지를 써서 끌려갔던 지나간 과거는 모두 잊고 함께 기주를 공격하자고 했다.

외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나 사실 원소는 점차 자신의 못하를 하나 들씩 기주의 중요한 곳에 배치했다. 한복은 자신의 근거지에 다른 사람이 객으로 와 있고 나서부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즐거운 추석연휴 '화재예방'



신오복 /무안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경

세계가 화재로 인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우리도 화재에 대한 대비가 어느정도 되어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추석 당일(36건)에 평소(31건)보다 많이 발생해 통계적으로 추석시즌이 화재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 교체하는 것이 좋다. 과압력 상태로 출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한다.



추석연휴 안전 위한 소방관의 제언(提言)

다가오는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다. 평소상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추석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튀김 등 음식 조리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K급 화재 전용 소화기나 밤비나 프라이팬의 뚜껑을 덮거나 상추나 배추, 양배추 등 잎이 넓은 채소로 산소를 차단하는 게 도움이 된다.

호남매일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회장 김현재 발행·편집인 고계방 편집국장 최추의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 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8800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http://www.honammael.co.kr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l@naver.com

Table with 4 columns: 지국안내, 사무, 운암, 이사안내,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